

깊어가는 가을밤 메조소프라노 '장은' 공연

'월간더문화' 25일 문화공간 이룸서 아름다운 목소리 만날 수 있어

사단법인 더문화의 '2022 월간더문화'에, 메조소프라노 '장은'이 여섯 번째 주자로 10월 공연을 준비 중이다.

'2022 월간더문화'는 사단법인 더문화가 2022년 새롭게 기획한 올해의 주력 프로젝트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매월 다른 주제와 아티스트로 다채롭고 활기찬 공연을 꾸리는 장기 프로젝트 공연이다.

10월 25일의 저녁을 빛내줄 메조소프라노 '장은'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독하여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에서는 리트와 오라토리오,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는 오페라 최고연주자과정 중 최우수 졸업한 실력과 성악가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테너 페터 슈라이어에게 '그녀의 카르멘은 날개를 달았다'라는 격찬을 받았고 하이델베르크 뮤직 페스티벌에 출연 당시에는 '영혼과 육체의 완벽한 화합'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라인벡카신문에 차세대 성악가로 소개되기도 했다. 독일과 한국에서 오페라 카르멘, 라플레토,



2022 월간더문화 메조소프라노 '장은' 포스터

포지관파테, 헨젤과 그레텔, 잔니스끼기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으며 MBN 주최 '세계

지식포럼' VIP 만찬 축하공연,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국제대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국제 대회 축하공연에도 출연한 바 있다.

또한 KBS 영상앨범 산, 열림음악회, 문화책갈피, EBS 세계테마기행, CPBC 평화방송 음악회, 국방티브이 등 다수의 방송과 콘서트에 출연하여 성악가와 독일의 음악 및 문화, 자연을 소개하는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동안 경인방송 라디오 fm 90.7에서 '장은의 뮤직 아플리에'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5년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고 국방홍보원 홍보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장은은 '장은의 오페라 한 잔'이라는 강연 콘서트를 진행하며 현재 전문 연주자, 공연 기획자, 진행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메신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은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문화공간 이룸에서 '2022 월간더문화'의 10월 공연으로 한국 가곡, 슈베르트의 독일 가곡 등을 통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소리와 춤 어우러진 한복문화공연 즐겨요"

남원시, 한복문화주간 맞아 23일까지 남원에촌 예루원마당서 진행

남원시는 2022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주말인 21일부터 23일까지 남원에촌 예루원마당에서 한복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번째로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한복과 공연예술 분야를 접목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눈과 귀로 만날 수 있는 멋진 공연으로, 첫 공연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의음(衣音)'이다. 21일 저녁 7시 퓨전국악을 중심으로 전통국악 기법의 실내악, 국악가요, 해금 협주곡, 대중가요에 신명 나는 민요 등으로 구성되어 한복문화공연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22일 오후 5시에는 전통 국악의 멋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의 공연 '우리 옷, 소리의 멋을 입다'가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가요, 민요, 판소리, 단막극까지 한복의 멋을 입은 음악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놓쳐서는 안 될 무대이다.

이번 공연은 국악공연뿐만 아니라, 온몸을 들썩이게 할 화려한 댄스 공연도 진행, 22일과 23일 오후 2시 K-댄스 한복을 입다'를 주제로 '스트리트 댄스 걸스 파이터' 출연자인 팀 에이치, POPCON(팝콘), TAGG(타고) 등 프로 댄스 팀이 출연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남원 학생들 사이 핫한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남원지역의 재능 있는 댄스팀 동아리 공연인 △남원중 학생들이 모여 만든 레일과 △정소년 동아리인 빛나리, 페어리가 흥을 더 하고, 남원국악예술고 무용팀의 소고춤이 아름다운 춤사위에 오색 빛깔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남원시청 홈페이지와 남원에촌·화인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 양인화 관광과장은 "가족, 친구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10월, 남원에서 아름다운 한복과 다양한 장르의 소리와 춤이 어우러진 한복문화공연을 즐겁게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11월 28일까지 도내 8개 문예회관에서 13개 작품 공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공연장 상주단체와 함께 '2022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JBPAF, 이하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11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덕진예술회관(전주) △정읍시예술회관(정읍) △김제문화예술회관(김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완주) △태권도원 공연장(무주) △한누리전당(장수) △고창문화의전당(고창) △부안 예술회관(부안) 등 8개 문예회관에서 13개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는 8개 상주단체인 △예술담은나라(장수) △타악연희원 아귀(전주) △완주팔하모닉 오케스트라(무주) △사단법인 클라무(부안) △국악예술단 고창(부안) △극단 삼육옥(완주) △전북발레시어터(정읍) △사단법인 드림필(김제)이 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 다채롭게 펼칠 예정이다.

특히, 13개 작품은 배우, 무용수, 연주가, 연희자 등 전 출연진과 무대 스태프 등 지역의 많은 예술가가 구슬땀을 흘리며 만든 전라북도 우수 창작 공연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한편, 이번 페스타는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공연장 운영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에서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행사다. /장은성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튜브 통해 '앙상블 콘서트' 공연 무료 공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앙상블 콘서트' 공연을 제42회 전북도민의 날인 25일 전당 유튜브 채널인 'SoriArts TV'를 통해 오후 7시부터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파이팅 콘서트 시즌III' 첫 번째 공연팀 크로스오버 그룹 '사과나무'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되는 '앙상블 콘서트'는 클래식 전공한 도내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 팀으로, 2018년 창단됐다. 팀명인 '콘서트'는 라틴어로 '치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전당에 따르면 '앙상블 콘서트'는 단원들이 클래식 전공자들이지만 클래식에 국한하지 않고 재즈, 탱고, 국악 등 고전음악부터 현대 창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폭 넓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매 무대마다 폭 넓은 작품 해석과 기량 높은 연주력으로 관객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음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이들이 지향하는 음악세계다.

한편 '파이팅 콘서트 시즌III' 마지막 무대는 '이우리 밴드'의 공연으로, 현재 편성과정에서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공연한 시즌 I과 시즌 II, 시즌 III 무대도 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도예의 향연 '제11회 남원국제도예 캠프' 개최

남원국제도예예술연구센터(이사장 김광길, 전 서남대 교수)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남원에서 후원하는 제11회 남원국제도예 캠프가 주말인 21일부터 23일까지 남원시 사랑의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도자기 작가들의 만남과 교류의 시간이 될 도예의 향연이 400여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한다.

조직위원회측은 정유재단 당시 남원에서 끌려간 심수관가를 배경으로 하는 일본작가 '시바타타로'의 소설 제목 '고향을 어찌 잊으리'를 제11회 국제도예캠프의 공식 주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기획초대전은 남원아트센터 개관 기념초대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리스·스페인·일

본·미국·중국·영국·터키 등 17개 국가 133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 세계의 다양한 도예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국내외 도예작가 기획초대전을 시작으로 초대작가 워크숍, 초청특강, 물레경진대회 등 수준 높고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22일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실시되는 물레경진대회는 전국대학생, 대학원생 및 전문도예가들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학생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현장에 오지 못하는 시민들과 도예인들은 대회 진행상황과 남원아트센터(구 KBS한국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획초대전 작품작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제2회 종지웃 한판 대회' 열린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1월 5일과 12일 '제2회 종지웃 한판'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놀이문화의 보급·확산과 보존·계승을 위해 추진되는 이 대회는 기존 못보다 작은 율을 지역특색이 드러나는 종지에 담아 펼치는 전통 율놀이 행사다.

지난해 1회 대회에는 총 74팀 200여 명이 참여,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총 상금 200만원 놓고 벌이는 이번 종지웃 대

회의 예선은 11월 5일, 본선은 12일 각각 진행된다.

선착순 100팀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JTJ문화사업국(063-250-5366)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특히 예선전 진행 중에는 부대행사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에 위치한 놀이집 및 공방에서는 공예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선운산농협의 웰빙지향 정직한 농민의 마음 브랜드입니다.

■ 본점: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84
- 사무실: 0631562-9604
- 팩스: 0631562-9601
- 아나모트: 0631562-9602
- 영농자재판매장: 0631562-9603
- 농기계서비스센터: 0631564-9605

■ 아산지점: 아산면 녹두로 793
- 사무실: 562-5007
- 사무실(야간): 562-5126
- 팩스: 561-0955
- 아나모트: 562-5166
- 영농자재판매장: 564-9772

■ 공음지점: 공음면 공음길 55
- 사무실: 562-7888
- 팩스: 562-7890
- 팩스: 564-6465
- 아나모트: 562-7889
- 영농자재판매장: 562-5556

■ 웰파크지점: 563-7255
- 팩스: 563-7256
■ 선운산지점: 561-3443
- 팩스: 561-4257
■ 북촌자기공시업소: 564-5008
- 팩스: 564-5078

■ 농산물유통센터: 562-9644
- 팩스: 562-9634
■ 선운산농협주유소: 562-9600
- 팩스: 562-9609

최고의품질, 친절한 서비스 / 선운산농협 직접 운영

선운산농협협동조합

■ 상임이사: 장봉남
■ 비상임이사: 장성균, 김완식, 주찬자, 나삼주, 김종진, 박수정, 허선하, 라종이, 김대열, 이종면, 김대진
■ 비상임감사: 최형곤, 유화봉

■ 조합장: 김기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지역에서만 자란 복분자 생과에 선운산농협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1544. 1589
복분자 1번지 선운산농협
http://www.berrywell.co.kr